

대한민국은 지금 '예쁜 누나' 설렘주의보

손예진-정해인 '환상케미'에 감정선 섬세 '예뻐 보이기' 아닌 편안한 일상모습 어필 극적이고 자극적 요소 없지만 몰입도 높여 "마치 내가 연애하는 느낌" 시청자들 공감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보는 순간 시청자도 연애에 동참한 듯하다.

"연애 하러 출발~"하고 달리는 '연애 열차'에 동승할 수 있다. 일종의 '체험 멜로'다. '사랑의 진도'의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할 것이다. 순간순간 섬세한 감정도 느껴볼 수 있다.

여기서 진도란 물리적인 진도 외에도 고민, 내면, 성숙 등 정신적인 성장도 포함돼 있다. 사람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들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JTBC 금토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죽었던 연애세포를 하나하나 살리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고도 설레지 않았다면 연애세포가 괴사했다고 자가진단하면 될 것 같다.

JTBC 금토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죽었던 연애세포를 하나하나 살리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고도 설레지 않았다면 연애세포가

없어졌다고 자가진단하면 될 것 같다. 이 드라마에서 연애를 시작한 건 손예진과 정해인인데, 왜 보는 사람도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JTBC 금토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죽었던 연애세포를 하나하나 살리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고도 설레지 않았다면 연애세포가 없어졌다고 자가진단하면 될 것 같다. 이 드라마에서 연애를 시작한 건 손예진과 정해인인데, 왜 보는 사람도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이 드라마에서 연애를 시작한 건 손예진과 정해인인데, 왜 보는 사람도 연애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이렇게 된 데에는 손예진-정해인의 좋은 케미와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Save The Last Dance for Me'와 'Stand By Your Man' 등 수시로 흘러나오는 올드팝이 이 동영상을 잘 어울리면서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신기하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극본 김은 연출



안판석)는 숨 가쁘게 자극적으로 흘러가는 안방극장 속에서 진지하게 인물들의 감정 전달에 집중하며 설렘을 극대화한다. 감각적인 연출과 데에는 손예진-정해인의 좋은 케미와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안판석)는 숨 가쁘게 자극적으로 흘러가는 안방극장 속에서 진지하게 인물들의 감정 전달에 집중하며 설렘을 극대화한다. 감각적인 연출과 데에는 손예진-정해인의 좋은 케미와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안판석)는 숨 가쁘게 자극적으로 흘러가는 안방극장 속에서 진지하게 인물들의 감정 전달에 집중하며 설렘을 극대화한다. 감각적인 연출과 데에는 손예진-정해인의 좋은 케미와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타지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그래서 보기에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손예진은 외적인 모습에서도 '예뻐 보이기'가 아닌 '윤치아처럼 보이'기에 맞춰져 있다. 가볍게 짙은 릿지 스타일로 자주 등장하는 부분도 직장 여성의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 주기 위해 스타일의 도움 없이 일상처럼 자신이 직접 머리를 묶어서 촬영에 임하는가 하면, 서너벌의 옷들을 반복적으로 착용하는 등 현실적인 캐릭터 느낌을 주기 위한 고심한 흔적들이 보인다. 음주신들 대부분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촬영해 눈가와

타지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그래서 보기에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손예진은 외적인 모습에서도 '예뻐 보이기'가 아닌 '윤치아처럼 보이'기에 맞춰져 있다. 가볍게 짙은 릿지 스타일로 자주 등장하는 부분도 직장 여성의 일상을 리얼하게 보여 주기 위해 스타일의 도움 없이 일상처럼 자신이 직접 머리를 묶어서 촬영에 임하는가 하면, 서너벌의 옷들을 반복적으로 착용하는 등 현실적인 캐릭터 느낌을 주기 위한 고심한 흔적들이 보인다. 음주신들 대부분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촬영해 눈가와

목가 붙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정해인이라는 남자는 한번 씩 웃기만 해도 여성들의 큰 반응이 나온다. 마치 시청자에게 웃은 것 처럼 착각하게 한다. 해맑은 웃음, 깨끗한 웃음, 상큼한 웃음에 스파트럼, 탠디함,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정해인이라는 남자는 한번 씩 웃기만 해도 여성들의 큰 반응이 나온다. 마치 시청자에게 웃은 것 처럼 착각하게 한다. 해맑은 웃음, 깨끗한 웃음, 상큼한 웃음에 스파트럼, 탠디함,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지난 7일 방송된 4회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설레는 연애를 시작한 윤진아(손예진)와 서준희(정해인). 밤샘 통화를 하다가 휴대폰을 귀에 올려놓은 채 잡드는 일은 기본이고 출퇴근길에 데려다주거나 옥상에서 만나 틈새 데이트를 만끽했다. 준희가

진아의 1박2일 출장에 따라가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눴다. 단 4회 만에 진아와 준희가 서로 재는 것 하나 없이 사랑을 향해 직진했다.

'예쁜 누나'는 일상의 긴 호흡 속에서 모든 인물들의 감정선을 세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극적인 사건도 없고, 눈으로 레이저를 쏘며 소리치는 인물도 없다. 그러나 진아와 준희의 감정이 드러나는 주요 장면들은 아름다운 올드팝 OST와 함께 슬로우모션으로 그려내며 두 사람에게만 몰입하는 재미를 이끌어낸다. 특히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화면 구성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진아와 준희의 들뜬 설렘을 고스란히 전한다. 특별한 극적이지 않은 데도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가족들 몰래 둘만의 연애를 시작한 이들 연인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는 하다.

누나 서경선(장소연)의 들도 없는 친구와 사귀게 된 준희는 얼마나 다름없는 누나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또 진아는 어떻게 이 드라마 최악의 캐릭터로 무개념의 극자인 엄마 김미연(김혜연)과 마주할까? 당분간은 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했으면 한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자극적인 요소도 없이도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심개념 웰메이드 연애드라마로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4월 극장가 '어벤져스' 천하? '그날, 바다'가 복병이다



'그날, 바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다룬 첫 추적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가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실시간 집계 기준 '그날, 바다'는 17.3%로 예매율 1위를 나타냈다. 경쟁한 국내의 화제작들을 모

두 제친 것은 물론 다큐멘터리 작품이라는 장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성으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언론은 질문을 멈추지 않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알고 싶은데 대한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4월12일 전격 개봉을 앞둔 '그날, 바

이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스티븐 스탈버그 감독의 신작 '레디 플레이어 원'은 '콘지암'과 같은 날 개봉, 4월9일 기준 3위를 달리고 있다. 그 가운데 '그날, 바다'가 도전장을 내미는 것. 하지만 경쟁작들도 쟁쟁하다. 4월12일엔 '그날, 바다'를 비롯해 '버니백', '웹 페이지', '코어터트 플레이어' 등 다수의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다. 외화 '코어터트 플레이어'는 '콘지암'의 뒤를 이을 호러 영화로 주목받고 있으며, '버니백'은 김무열 박희순 이경영 등 명품배우들이 총출동하는 범죄 코

다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비수기라 불리는 4월 극장가는 현재 대형 영화 없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화들이 앞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지난 4월5일 개봉한 국내 코미디 영화 '비탈 비탈 비탈'과 지난 3월28일 개봉해 반전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공포 영화 '콘지암'

미디어로 관심을 모은다. 또 드웨인 존슨의 외화 웹 페이지도 상반기 기대작 중 하나다. 여기에 오는 4월 25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가세한다. 4월 극장가 최대 화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써부터 천만 외화 '어벤져스: 시리즈물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국내 상륙 소식이 극장가가 들쭉거리고 있다.

쉽지 않은 싸움 같아 보이지만 일단 예매율이 '그날,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한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날, 바다'가 '노무현입니다', '김광석', '공중정범' 등이 이끈 다큐멘

터리 영화 흥행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현입니다' 등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에 줄줄이 무너졌던 제작들이 또 나오지 않란 법은 없다.

한편 '그날, 바다'는 지난 4월7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함께 사건 시사회를 진행해 가족들의 동의를 얻었다. 영화를 관람한 가족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달라진 건 없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

을 알고 싶은지 묻고 싶다"며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이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이야기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파위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꼭

막 내린 '무한도전',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1위

9일 CJ E&M이 공개한 주간 콘텐츠 영향력 지수 리포트에 따르면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CPI(콘텐츠 영향력 지수) 278.7로 지난 주 대비 일곱 계단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무한도전'은 주목하는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관심 높은 프로그램 부문 2위를 차지해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SBS 수목 드라마 '스위치 세상을 바꿔라'는 CPI 240.1로 2위에 올랐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CPI 233.4로 지난 주 대비 두 계단 하락한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무한도전'의 상승세는 그대에게서 CPI 232.1로 4위에 올랐다.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5위,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은 6위,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는 7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8위,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은 9위,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는 10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SBS 수목 드라마 '스위치 세상을 바꿔라'는 CPI 240.1로 2위에 올랐다.

이러한 '무한도전'의 상승세는 그대에게서 CPI 232.1로 4위에 올랐다.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5위,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은 6위,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는 7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8위,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은 9위,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는 10위에 올랐다.

이러한 '무한도전'의 상승세는 그대에게서 CPI 232.1로 4위에 올랐다.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5위,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은 6위,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는 7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8위,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은 9위,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는 10위에 올랐다.

이러한 '무한도전'의 상승세는 그대에게서 CPI 232.1로 4위에 올랐다.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5위, tvN 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은 6위,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는 7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8위,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은 9위,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는 10위에 올랐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음력 2월 26일)

<p>▶ 쥐 4, 8, 12월생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상책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는 안식처를 찾기 힘들 듯하다. 이성을 찾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그, 사, 흥 성씨 사업 번창을 원하면 신용부터 지리라. 제품 확실성과 창의력도 보강하면 좋겠다.</p>	<p>▶ 용 아무도 모르게 해삼 속에서 내 색깔을 키워가는 격이다. 그, 자, 툄 성씨 주위 도움 없이도 일정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번창시킬 수다. 가정의 화목도 한몫하는구나. 1, 2, 5, 7월생 성급하게 행마를 서두르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다.</p>	<p>▶ 원숭이 투기에 손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법이다. 3, 7, 9월생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쥐, 소, 양, 개미 조연은 천금을 쥐도 야망이 없다. 그, 오, 툄 성씨 사업을 하려면 장래성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나 추진력도 필요함을 알라.</p>
<p>▶ 돼지 나무가 반듯하고, 불꽃 있게 성장하려면 잔가지가 잘리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1, 6, 7월생 부모 품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다. 그, 나, 흥 성씨 사업가라면 열매를 맺기 위해 고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내년 초봄 사업 운이 확장하거나 변동할 듯하다.</p>	<p>▶ 닭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 꼴이다. 9, 11, 12월생 책임감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 때가 왔다. 막사를 놓칠까 염려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미혼 그, 나, 흥 성씨 현재 애인과 내년쯤 웨딩마치를 울리면 좋겠다. 건강을 주의하라.</p>	<p>▶ 양 그, 오, 흥 성씨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쉬는 날이 될 듯하다.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라. 5, 7, 9, 10월생 인형이 되지 말라. 타인이 조정하는 대로 따르면 당신에게 이익이 없다. 내 의견을 과감히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시비를 조심하라.</p>
<p>▶ 호랑이 1, 10, 12월생 바다의 잔잔함만 믿다가 폭풍의 과격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음을 알라. 바, 툄, 흥 성씨 마음의 고통을 삼키려만 말고,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애정은 감정을 드러내라. 고삐를 더욱 단단히 잡으라.</p>	<p>▶ 말 2, 3, 7월생 사업에 서광이 비칠 듯하다.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기본파적인 성격이 매사를 흥탕물에 빠뜨린다. 그, 나, 오, 흥 성씨는 연상의 연인이 검은손을 뻗치니 흰 장갑을 끼워주는 것이 좋겠다.</p>	<p>▶ 개 내 욕심이 가정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라. 분수를 지키면 편안하다. 1, 2, 6월생 건강이 염려스러운 날이다. 작성한 문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구나 동료와 유대관계가 좋아진다. 검은색을 피하라.</p>
<p>▶ 토끼 열쇠는 본인의 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그, 자, 흥 성씨 부하직원을 타하는 것이 내 명예에 먹칠하는 것임을 잊지말라. 3, 8, 9월생 가정의 앞날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바, 오, 툄 성씨를 멀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p>	<p>▶ 개 그, 나, 흥 성씨 자만심에 빠지면 좋은 일도 액운으로 변하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함용성과 겸손함을 흠수하면 좋겠다. 5, 6, 12월생 생각하면 할수록 보고 싶어지는 것이 떠난 연인이다. 새로운 일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지. 동기간 화목하라.</p>	<p>▶ 돼지 얼어붙은 동지에 새가 앉으니 온기는 있으나 자신은 아픔을 당하는구나. 3, 7, 9, 11월생 나를 희생해 남을 도우니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그, 오, 흥 성씨 사업은 가정을 다스리라. 그를 믿는 것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다.</p>